

24년 7월 목회일정

7일(주일)	임시제직회, 당회
14일(주일)	특강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21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8일(주일)	초빙설교(박하림강도사/칼빈대학원-교의학)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11일(목)	총회 통일대비위원예비모임(제2영도교회당)
18일(목)	총회 공천위원회(성동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신정민선교사 곡성연화교회 부산장 애인전도협회)
- 초빙설교** / 다음 주 오후예배는 박하림강도사(미,칼빈대학원 교의학)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 성찬가족심방** /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조-박지영가정 2조-김영민가정 3조-김낙형가정
* 오후 8시 성찬조장모임을 영상으로 가지겠습니다.
- 신앙고백반교육** / 오늘은 성찬가족심방으로 쉬겠습니다.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4년 8월 23~25일(2박 3일)
- 장소 : 창녕 온누리청소년수련원(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786)
- 회비 : 장년-5만원 S.F.C-3만원 초등부-1만원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금요독서회	20:00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7월	8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김명순
안 내	김학희	최진언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개혁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7.21.(제28-29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 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1:1-2(교송)
인도자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 배 찬 송 ↑ 찬송24장(1a-1b)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주계명/봉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다함께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가251장(3-4)

죄의고백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 경 봉 독 ↓ 계22:1-5, 창2:4-14
-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가63장
- 설 교 ↓ 설교자

에덴의 동방에 창설된 교회

-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시편122편

폐 회

-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성찬가정심방		사회 각 성찬조장 설교문 양주동 목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찬447장(1-2)	
기 도	성창조원 중	
성 경 봉 독	마 15:21-28	
말 씀 선 포	성찬조장대독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		
목 적 헌 금	구제목적	
찬 송	찬447장(3-4)	
주 기 도 문	다같이	
성찬가정심방		
1. 진행		
1) 다과는 각 성찬조별로 자유롭게 준비합니다.		
2) 심방가정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빨리 정돈을 합니다.		
3) 심방가정에 공적심방 외의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성찬가정심방		
1) 심방기도회는 조장이 기도회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2) 드러진 [구제목적헌금]은 조장이 재정부에 전달합니다.		
3) 심방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4) 먼저 당회가 제공하는 공적인 나눔으로 나눕니다.		
5) 공적 나눔 이후에는 조장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6) 심방 가정과 참석자들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3. 정리		
1) 마치고 헤어질 때는 조장의 기도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2) 마친 후 성찬보고서는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전송합니다.		
3) 주일오후 8시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찬조장 모임에서 그 날 기도회와 심방과 교제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에덴의 동방에 창설된 교회)	
1. 교회가 산위의 동네로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의 빛과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며 살도록	
2. 교회가 주께 받은 생명수를 이 바다같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세상을 소성시키는 역할하게	
3. 천한 돌맹이같은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보석돌로 주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1.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옛사람의 행실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2. 가족의 독일거주를 위한 동반비자 발급이 순차히 이뤄져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3. 총회선교부를 통한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환경이 호전되어 새로운 사역에는 변화가 없도록	
곡성영화교회(최지혁 목사·고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산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목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찬]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김해(목, 18: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울산(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주간성경읽기		
주 일	시110-112	눅11:1-28
월	시113-115	눅11:29-54
화	시116-118	눅12:1-34
수	시119:1-88	눅12:35-59
목	시119:89-176	눅13:1-21
금	시120-122	눅13:22-35
토	시123-125	눅14:1-24
이야기성경		
구	53. 빼앗긴 황금언약계	
	54. 사무엘과 사울	
신	34. 성탄식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예고대로 이방인들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외인이었던 바로 우리가 언약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한다면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믿음을 가진 신자와 함께 합니다.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백성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제 언약의 주를 믿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언약의 주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면, 간절히 주님의 일이 완성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완성될 주님의 일, 곧 완전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께. 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뻐해주실 겁니다. 아멘

- 오늘 성찬모임의 말씀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이 성경본문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나요?
 - 예수님께서 한 이방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예수님께서 이방여인에게 2)번과 같이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예수님께서 이방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언제였나요?
 -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지역으로 가신 것은 언제였나요?
 -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오늘 오전 설교 중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에덴교회와 우리교회는 어떻게 하나의 교회인가요?
 - 우리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인가요?
 - 우리 교회는 생명수 물이 흘러내리는 교회인가요?
 - 우리교회는 각종 보석이 가득한 교회인가요?
-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생활 중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 8월에 있을 연합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나요?
- 오늘 심방가정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주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가 들어간 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개라고 불렀다는 건 엄청난 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양이나 소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이죠. 하지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짐승이죠. 성경 안에서는 언약의 외인들을 이렇게 부정한 짐승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 네 믿음이 크도다

이어서 이방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여인에게 크게 놀라셨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르며 자기비하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언약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약의 주인의 자녀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결국 그 은혜가 개들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이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거절했지만, 이 이방여인은 그 떨어진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크게 칭찬하신 경우는 성경에서 두 차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 백부장(마 8:10)입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언약백성들도 저버린 은혜를 귀하게 믿은 이방인들입니다.

언약은 언약의 주인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언약의 장소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예루살렘’(돌 성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삼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혈통과 전통, 돌 성전에 집착을 하는 자들을 떠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약백성이 언약을 저버릴 때에 언약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언약이 함께하는 장소가 됩니다.

말씀이시며,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직접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이방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장차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7월21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63장
성경봉독	창2:4-14, 계22:1-5
설 교	에덴의 동방에 창설된 교회	
기 도	부모대독
주기도문	부 모 다 같이

주제 : “산 위의 동네인 교회는
만방에 생명수 물을 흘러나오게 하는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설하신 교회, 곧 에덴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종말의 때에 속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다.’

에덴동산은 첫 번 교회였습니다. 이 에덴교회는 에덴 땅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동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후 에덴동산에서부터 네 강으로 갈라졌다는 말씀을 통해 에덴 땅과 에덴동산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10, 창,겔 28:13-14) 더욱 언약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산이 북쪽에 있다고 노래했습니다.(시 48:2,사14:13) ‘북쪽, 또는 북방, 북극’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위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언약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높은 곳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집을 산 위에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에덴,동산,시내산,성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일, 곧 종말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위에 설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일,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에덴교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산들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본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빌3:20)

주님은 교회를 산위의 동네로 삼으시며, 산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세상에 밝은 생명의 빛을 드리우는 동네, 그래서 사방에서 이 빛이 비취는 산 위로 모여오도록 하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서는 그 교회의 쫓대도 옮기실 것입니다.

2.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이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에덴동산을 두루 돌아 거기서 네 강으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계22:1,2) 처음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의 물은 참 성전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린 생명수 물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이 성전은 옛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

스도이십니다.(요2:19,21) 생명수 물은 언제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요7:37-39) 산위의 동네로서 새 언약의 교회는 에덴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을 통하여 천하만국에 생명수 물이 흐르고 새 생명의 기운이 쏟아 난 것처럼, 교회는 생명수 강을 천하만국에 흐르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이제 성도는 천하만국에 생명수 물을 흘러내 보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웨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우리주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행2:7-12, 요7:37-39) 이 바다를 덮을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신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으로서 저 바다, 저 스올같은,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이방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수물을 흘러 보내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교회는 생명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삶을 적시고 이제 그 생명수 물을 배에서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3. ‘교회는 각종 보석으로 둘러져 있다.’

비손강이 흘렀던 하월라 땅에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습니다(12).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더 많은 보석들이 에덴 주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말합니다.(겔28:13) 이렇게 보석으로 둘러싸인 에덴동산은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하시는 처소를 꾸미실 때에 평범하고 단순한 돌맹이가 아닌,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셨습니다.

주님의 집을 꾸미는 아름다운 보석들은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돌(엡2:20-22, 벰전2:4-5)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꾸미는 성전물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셨던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셨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같은 천한 돌같은 우리를 보석돌들로 삼으셔서 주의 거하실 집을 지으셨습니다.

잘 다듬어진 보석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비취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나겠습니까? 과연 새 예루살렘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들에게 빛을 비추고, 휘황한 등불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빛이 각양보석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성을 비출 때 그 집을 꾸미고 있는 금과 은과 진주와 각양 보석들인 성도들이 영원토록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면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와 달이 쓸데없고, 밤이 없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계21:23, 22:5)

바울은 주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위에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나타내시려고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 순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어진 집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던 돌들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점점 연단되고 자라 주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각종보석이 가득한 튼튼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7월21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47장
성경봉독	마 15:21-28
설 교	언약의 주인을 믿는 믿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예수님은 언약을 주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줍니다. 이 속담은 감동적이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딱 떨어지는 듯합니다. 이 이방여인은 예수님께서 무뚝뚝하게 반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개’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본문만 딱 떼어서 본다면 이 여인의 정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이니, 여인의 믿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원하는 바를 끝까지 간청하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방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이 시간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잃어버린 양을 위한 보내심

이 이방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을 못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를 쫓아냅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 여인은 크게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말씀 모두 아직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을 때였습니다.

먼저는 주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은혜의 떡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가